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6  
vol. 38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6년 여름호

## 시론

- 3 102관의 이름을 찾아 줍시다!  
임준석(23회) 부회장

## 동문회소식

- 5 화보
- 8 중앙대 약대 학위수여식
- 10 제59차 약대 동문회 정기총회

## 동기회소식

- 12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이종각(13회) 총무
- 16 2016년, 무르익은 어느 봄날에 함께 한  
우리들의 추억여행  
김종기(18회) 총무

## 동아리소식

- 21 병태생리반  
유종운(29회) 회장

## 동문이야기

- 24 재생의학을 실현하는  
total healthcare company  
정상수(24회)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표이사

## 약국도움이야기

- 26 숙주세포 침투가 나의 운명-바이러스  
편집위원회

## 33 만평

### 회원동정

- 34 100주년 기념관 동판제작 기부명단  
김순호(11회) 동문 장학기금 기부  
제46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안내

## 35 장학기금

## 36 편집후기

## 102관의 이름을 찾아 줍시다!

올림픽의 열기가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 성숙한 국민들은 더 이상 금메달이 아닌 선수들 개개인의 열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라”던 그 열정, 헌신, 인내에 찬사를 보냈던 것이지요. 금메달의 가치를 환산하면 몇 백억 또는 몇 천억이 된다는 자본주의적 계산법을 뒤로 한다면 그 의미는 애초에 뜻을 세우고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잃지 않고 부단히 계속되는 노력에 방점을 찍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쳇말로 돈 많이 준다고 금메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2002년 3월로 기억합니다. 대학 전체의 발전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약대의 상징이던 파이퍼홀을 내어 놓은 7천5백여 동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춰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찬동하여 ‘102관’ 또는 ‘R&D관’이 아닌 ‘약학관’ 건립을 위해 ‘신축약학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화된 우리 약학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시 한 번 정체성을 재확립한다는 각오로 나선 뜻이 알려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약업환경 하에서도 해외를 포함한 전국의 동문들을 위시하여 교수진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현재까지 총 75억여 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최고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는 선배들의 사랑이 결집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유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그럴리아 없겠지만 일설에 의하면 모금액이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1년 신축건물이 완공되면서 기대했던 ‘약학관’의 문패는 간곳이 없고 ‘102관’ 또는 ‘R&D관’이라는 별칭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은 우리 약대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가슴에 “왜?”라는 의문과 함께 큰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 준 석(23회)  
부회장

그나마 2015년 1월 동문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동의해주지 않던 중앙대 공간설치위원회의 심의를 어렵게 통과하여 '약학대학' 표지석을 세우면서 작은 위안을 삼은 바 있습니다. 새삼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모교 교수님들로부터 또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내 부족한 공간을 이유로 신축되는 100주년기념관이 완공될 때까지 협조를 요청받고 기념관 완공시 약대 공간을 1-6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대학본부 측의 약속을 믿고 안 그래도 부족한 공간을 한시적으로 양보했었는데,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대학본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 약학대학 교수님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약대 통 6년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배경하에 약학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채용할 신입교수 연구실 확보와 실무실습 강화를 위한 제약실습실 및 실습약국 확대를 위해 추가의 공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학본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당연히 돌려주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계속 점유하겠다는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교수님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필요하다면 선의로 '빌려주었던' 우리의 공간을 회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2관'이나 'R&D관'이라는 틀에 가려져 있는 '약학관'이라는 본연의 이름을 찾는 대의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동문들이 분연히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단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01

01 3월 25일\_ 장학기금위원회의

02

03

02 3월 30일\_ 2016년 1학기 장학금수여식

03 4월 15일\_ 감사수감





- 01
- 02
- 03

- 01 4월 23일\_ 부천분회 정기총회
- 02 4월 26일\_ 최종이사회
- 03 6월 14일\_ 고문단, 자문위원단회의



01

02

03

- 01 6월 16일\_ 천안분회 모임
- 02 7월 7일\_ 회장단회의
- 03 7월 8일\_ 총장면담



## 중앙대 약대 학위수여식 “최고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학전공 52명, 제약학전공 60명 총 112명 약학사 배출

중앙대 약대 2015년도 학위수여식이 18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0회로 약학전공 52명, 제약학전공 60명 등 총 11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약대 한상범 학장은 식사를 통해 인생을 등산과 비교하며 졸업생들이 최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 학장은 “해발 0m부터 등산을 하기 때문에 성산일출봉을 오르는 것이 설악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다”며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은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베이스캠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되어 졸업하는 지금 베이스캠프에 도달한 것과 같다”며 “졸업생 개개인이 가고자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식사를 갈음했다. 동문회 김현태 회장은 축사에서 “정든 모교를 떠나 보건의로 향상과 국민 보건을 위해 일하게 된다”며 “그간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중앙약대 동문이 된다”며 “혁신과 도전으로 역사와 전통의 모교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학수석을 차지한 진혜진 학생은 “4년동안 함께한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아쉽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병원에 취직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병원 임상을 열심히 수행해 임상약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한 내빈들로는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 한갑현(26회)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김영희(28회) 동작분회장, 김현태(20회) 중앙약대 동문회장, 곽나운(27회) 중앙약대 여동문회장, 정찬헌(20회) 약사공론 부주관, 백운경(21회) 천안·나사모회장, 김종효(21회) 일동생활건강 대표이사, 김정일(30회) 삼진제약 이사, 최재희(33회) 건일제약 대표이사, 장승익 하이텍팜 이사 등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

### 2015학년도 제60회 졸업생 명단

#### 약학전공

강영명 고민혜 김 건 김다영 김민수 김수진 김우섭  
 김은혜 김주연 김하나 김혜민 김 환 김희주 남궁현  
 박예솜 박유나 박지현 방아영 서윤정 성승호 신솔아  
 심기현 안예경 양윤석 양정원 윤찬중 이강보 이경훈  
 이상의 이성수 이승엽 이영광 이은영 이은현 이의정  
 이재빈 이종화 이창영 이탁근 이혜인 임성주 장현희  
 전내솔 전연선 전은진 조미현 채수인 최은미 최재성  
 최정환 한주희 홍성철 【이상 : 약학전공 52명】

#### 제약학전공

강태훈 구미란 구수현 구희원 권경완 권성은 김보현  
 김상현 김성현 김영인 김정수 김태수 김하은 박남수  
 박민지 박성현 박진영 박혜선 변성민 성시우 손아름  
 송지혜 신수연 신한재 안민지 엄태용 여인영 오성훈  
 유모경 유민주 유승엽 유효정 윤새롬 윤선영 윤소현  
 이병주 이상현 이소연 이에빈 이은주 이준호 임동현  
 장태웅 전주희 정가희 정상호 정슬용 정은선 정재영  
 제성혜 진혜진 최지훈 최진현 최혜진 한승완 한중수  
 현규환 현기협 현영롱 홍서영 【이상 : 제약학 전공 60명】

### 수상자 명단

####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진혜진
최우등(학과수석)	박지현
최우등	전연선, 구희원 한주희, 유승엽
우등	박유나 외 5
우수	이탁근 외 8

####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진혜진	천안분회	김상현	28회 동기회	김우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지현	수원분회	이은주	일동제약(주)	이성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연선	공로상	김태수	삼진제약(주)	김 건
서울특별시약사회	구희원		김희주	건일제약(주)	박혜선
경기도약사회	한주희	나사모	박예솜	(주)은누리약국체인	이영광
동작구약사회	유승엽	16회 동기회	이탁근	(주)하이텍팜	안민지
분동문회	박유나	20회 동기회	심기현	안양분회	홍서영
여자동문회	박민지	26회 동기회	김하은		



## 제59차 약대 동문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9차(2016회계년도) 정기총회가 중앙대 약대 11층 University Club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김현태 회장과 이해룡 사무총장을 위시한 현 회장단을 필두로 김기흥, 최종목, 임완호, 권혁구, 유정사, 서국진, 윤대봉, 장재인 고문은 물론 김창중 자문위원, 박석동, 정명진, 이경옥 감사, 여동문회 곽나운 회장, 박찬희, 강희윤, 양덕숙 여동문회 고문이 자리를 같이 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총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셨다.



학교측에서는 한덕용, 김일혁 명예교수님과 한상범 학장, 최영욱, 황완균, 손의동, 오경택, 김은영, 오경수, 정경혜, 이지윤 교수가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자리를 지켰으며,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 인천시약사회 최병원 회장,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최규팔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박하영 회장,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정태원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임득련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심숙보 회장, 한국여약사회 서정숙 회장 등 내빈들이 우정 참석하여 총회의 의미를 배가시켜 주었다.

김현태 동문회장은 “20대 집행부가 오늘로 1년을 마무리하며 기약하는 자리가 됐다. 동문들의 성원으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사회에 규제개혁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약사사회를 주도하는 동문들의 많은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 역시 규제개혁 저지를 위해 동문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다. 조회장은 “힘들게 당선됐음에도 동문들에게 인사, 식사대접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다만 어렵게 선거를 끝마친 후에도 저를 비롯해 유정사, 양덕숙, 궤나윤 동문이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고생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수 없이 해왔는데 그 예감이 맞은 것 같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라 화상투약기가 규제개혁 의제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특히 기재부에서 복지부 등에서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법인약국 등등 많은 현안이 10가지 이상 밀려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인의 독심으로 뚝뚝하게 물리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삼아서 조찬회 2기 집행부 업적을 삼켰다고 약속했다.

한상범 중대약대 학장은 “현재 약대는 학사구조 조정, 신입생 인원 감축 등과 같은 학내 외의 어려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곳곳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의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며 “동문들이 지켜봐 주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의동 대한약학회장은 “내년 FIP 서울 총회는 대한민국 약사와 약학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의약품 연구개발과 교육, 개국약국, 병원 등 모든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와 2016년도 사업계획(안),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집행부에게 위임키로 했다.

## 수상자 명단

### 총장 공로패

이기안(7회) · 노신희(9회)



이성우(12회) 삼진제약 대표



장재인(17회) 약사공론 사장



양덕숙(28회) 약학정보원 원장

### 학장 공로패



함한성(24회) 정문약국



칼라무스 구영준(41회)  
성남일번지약국

### 총동창회장 공로패



남상구(19회)

김정호(27회) 조암약국

이영주(28회) 하나약국

### 동문회장 공로패



문주기(20회) 육교약국

이형수(24회) 우림약국

임중식(35회) 고봉약국

최은영(38회) 메디신약국

### 동문회 출신 약사회 분회장 당선 축하패





##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13회 동기회 일본여행기

여행은 삶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다른 저편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떠 올리는 것!

또한 여행은 내 삶의 활력소이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같은 것이기에 우리 13회 동기들의 5일간의 일본여행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 둡니다.



이 종 각 (13회)  
총무



### 우정으로 중무장한 단합과 친목의 상징 13회 동기회

지난 4월 우리 동기들은 부부동반으로 5일간 일본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고회를 넘는 나이들이라 장시간 비행을 꺼려하며 많이 걷는 것도 싫어하는 나이가 되어 그동안 50대 초반 팔팔한 나이에 관광했던 캐나다, 스위스, 유럽 5개국,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장거리 비행을 먼 옛날이야기로 돌려버리고 인접한 일본관광을 택했습니다.

우리 13회 동기회는 박동규 회장을 주축으로 해외여행 전문가인 이충식 해외부장 등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똘똘 뭉쳐 매월 1회씩 단합과 친목을 다지고 있는 우정으로 중무장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65학번 우리 동기들이 중앙대 약대에 입학할 때 1965년 동아일보 전면에 전국대학 최고경쟁을 중앙대 약대 18.8:1이

라고 써어진 그때의 대서특필했던 기사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부여했으며, 그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자신 부부커플이다 보니 더욱 애교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 제대 후 복학한 우리 65학번 동기들 중 72년도 전국약사고시에서 이해룡(천안에서 약국경영)이 1등, 김상열(作故)이 3등으로 합격이 되었으니 중앙대 약대의 위상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기회의 자금심에도 큰 기여를 한 쾌거였습니다.

때로 2014년도에 우리 동기 부부들이 6차 여행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관광하며 세계 최고의 건축물 가우디 대성당 앞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어 보는 일도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던 건강한 시절 13시간 넘는 비행을 하며 10일간 다녀 온 스페인 관광이 지금 생각해도 참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몇몇 친구들은 일본이 지진으로 큰 비상이 걸렸는데 가봐야 관광기분도 안나니 연기하자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갈 나고야 중부는 괜찮다며 그대로 추진하자고 하며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박동규 회장의 통 큰 결단으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 진도 7.3의 구마모토 강진을 뚫고 출발!

일본은 면적 37만 7천km<sup>2</sup>, 인구 1억2천700만명, 차량 7,500만대, 국민 1인당 GDP 3만8천\$로 우리나라보다는 규모로 보아 앞서 가는듯 하지만 익히 알려진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한 나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이번 일본여행은 3~4개월 전부터 각자 운영하는 약국에 관리약사를 두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약을 완료했으나, 24명이 출발하기 1주일 전에 일본 구마모토현에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일본이 지진으로 큰 비상이 걸렸는데 가봐야 관광기분도 안나니 연기하자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갈 나고야 중부는 괜찮다며 그대로 추진하자고 하며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박동규 회장의 통 큰 결단으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0일 아침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탑승, 고마츠 공항에 내려 5일간의 여행 중 첫 방문지로 가나자와성을 포함하여 400년 역사를 가진 겐로쿠엔 문화재지정 정원 특별명승지를 택했습니다.

면적이 11ha에 수목의 종류가 160종에 8,200그루이며, 자연적인 수압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높이 3.5m

의 분수가 연출하는 장관, 하나미바시의 벚꽃, 철쭉꽃, 제비꽃과 매화나무숲은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겐로쿠엔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흑송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인화해 두었습니다.

다음 코스로 칠기와 아침시장이 유명한 와지마 아침시장을 둘러본 후 도야마현 타카오카로 이동하여 일본 3대 대불중 하나인 타카오카 대불을 구경한 다음 다테야마역으로 가서 일본의 알프스라는 3,015m 고지의 알펜루트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 13m 높이 만년설로 쌓인 무로도 설벽의 장관

급경사진 산봉우리를 케이블카로 이동하여 삼림욕장으로 유명한 비조다이리를 감상하고 고원버스로 알펜루트의 최대 경관이라고 하는 무로도에서 도로 양쪽으로 13m 높이의 만년설로 쌓인 설벽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 있었음은 지금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무로도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시기가 4월말에서 5월초까지로 우리들이 이 시기에 절묘하게 맞춰 여행 온 보람을 만끽했습니다.

온 천지가 하얗게 설벽으로 장관을 이룬 알펜루트 관광을 마친 후 지하케이블로 구로베호로 이동하여 동양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댐인 구로베댐 위에서 단체 인증사진을 찍고 나가



“ 우리 13회 동기회는 박동규 회장을 주축으로  
 해외여행 전문가인 이충식 해외부장 등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뿔뿔 뿔뿔  
 매월 1회씩 단합과 친목을 다지고 있는 우정으로 중무장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

노현의 산촌마을 하쿠바를 둘러 보았습니다.  
 다음날은 아즈미노로 이동하여 한적한 정원처럼 꾸며진 고  
 추냉이 농장인 대왕와사비 농원을 감상했습니다.  
 다시 마츠모토로 옮겨 마츠모토성을 견학한 후 마지막 밤을  
 에나코 그랜드호텔에 머물며 우리 일행 전 부부가 온천욕을  
 마치고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로 갈아입고는 분위기 있는  
 특실에서 만찬을 하며 사케를 반주로 마음껏 회포를 풀며 추  
 억에 남은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날 나고야로 이동하여 이구동성으로 예정에도 없던 손주  
 들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해야 한다고 하여 특별히 시간  
 을 낸 후 선물 받은 손주들이 즐거워할 모습을 상상하며 일  
 본 중부국제공항을 출발,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 했습니다.  
 이번 일본관광 5일 동안 아무 불평 없이 협조해주고 훈훈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 50년 지기들인 13회  
 동기들 박동규 회장, 이충식 해외부장을 비롯한 문재빈, 서  
 국진, 신선철, 안병식, 윤해선, 이상길, 이수걸, 이종각, 조성  
 복, 천수이, 최호순, 한도식 친구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고맙

고 감사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신 부인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  
 씬을 드립니다.

일본관광을 하며 우리가 배워야 될 친절하고 검소하며 청결  
 한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호텔에 묵은 후 다음날 출  
 발할 때 호텔 전 직원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손을 흔  
 들며 환송해 주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로나 골목에도 휴지 한 장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은 감  
 동을 주었고 식당에서 휴지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한참 후에  
 야 휴지 한 장만 들고 와서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고 흥청망청  
 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는 2018년이면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입  
 니다. 1918년 인사동 중앙교회에서 출발하여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킨故 임영신 박사의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명언  
 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8차 해외관광에도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동기들이 동참할 수 있길 기원하며 추억의 기록을 마무  
 리합니다.

# 2016년, 무르익은 어느 봄날에 함께 한 우리들의 추억여행

18회 동기회

그리운듯 가슴 먹먹하고, 애뜻한듯 안타까우며,

진한듯 애써 담백하게 이어진 우리들의 꾸밈없는 삶과 우정의 이야기





### 로또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1박2일의 추억여행

수십 년을 서울에 살면서도 좀처럼 기회가 없어 잊고 지내다 실로 오랜만에 나와 본 서울역은 옛적 그 서울역이 아니었다. 토요일 다소 늦은 오후 시간, 해질녘 넘어가는 햇살이 대합실 유리벽면을 통해 다소 후텁지근하게 들어오고 있는 새로 지은 서울역사에는 어디론가 오고 가는 사람들로 무척이나 붐비고 있었다.

우리들의 포항으로의 추억여행은 봄이 한껏 무르익어가는 2016년 5월 28일 오후 6시경 그렇게 서울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18회 동기회 모임에서 포항으로의 추억여행 얘기가 처음 나온 지는 벌써 수년이 되었고, 거의 연례행사처럼 각종 모임 때마다 이 안건이 거론되었건만, 매일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바쁜 일상과의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데일리 라이프를 고려해보면 1박 2일의 추억여행은 언감생심, 조금 과장된 표현

으로 굳이 말하자면 로또복권 당첨보다도 더 어려운 일로 그동안 치부되어 왔었다.

이렇듯 그야말로 수 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큰 맘 먹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한 것은 현 회장단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추진력과, 막상 생고생 지대로(?) 각오해야 할 것 같은데도 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벌써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포항행을 실행하도록 압박(?)하며 초대해 준 영일만 싸나이 권영철, 김성만 두 친구의 적극성이 결과적으로 이번 추억여행 성사의 일등 공신이 아닐 수 없었다.

### 무심히 길어진 세월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아주 미려하게 잘 빠진 외관과 현대 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초스피드를 자랑하는 KTX 산천호는 예정된 시간인 6시 50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울역 플랫폼을 소리없이 빠져 나가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잘 익어가는 봄날 토요일 늦은 오

“ 일상에 매진하다 보니 이렇듯 자유롭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가 없었고, 무심히 길어져 버린 긴 세월로 인한 마음의 간격을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한껏 좁힐 수 있는 아주 값진 기회라는 점을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시작한 여정이었다. ”





“

각자의 삶을 곳곳이 살아낸 후,  
2016년 어느 좋은 봄날 학창시절에  
맺은 인연의 끈을 짧지만 긴  
1박 2일의 재회로 다시 이어  
지난 세월 서로의 꾸밈없는 삶과  
우정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 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따스한 감정까지도 소담히 담아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고맙고도 유익한 기회였다.

”

후의 나른한 시간 속을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 물 찬 제비처럼 나는 듯 달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출발하기로 약속된 우리 일행 11명(전광우 회장, 전춘이 총무, 이훈복 총무, 김애경, 여운숙, 오윤숙, 박광숙, 강응모, 김기명, 임종진, 김종기)은 한 사람도 착오 없이 약속시간 엄수하여 KTX에 탑승, 항상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그렇듯이 적당한 흥분감과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포항으로의 즐거운 여정에 올랐다.

청춘의 피 끓던 시절을 절절히 함께하며 다져진 우리의 돈독한 우정이지만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된 각자의 삶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일상에 매진하다 보니 이렇듯 자유롭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가 없었고, 무심히 길어져 버린 긴 세월로 인한 마음의 간격을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한껏 좁힐 수 있는 아주 값진 기회라는 점을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시작한 여정이었다.

당일 다른 일정과 겹쳐서 서울에서 같이 출발하지 못한 우리 동기회의 차기 회장 후보 1순위 조중형 친구, 매사에 솔선하고 배려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친구답게 이슬과 따뜻한 순대 및 여러 간식거리를 한아름 안고 대전에서 예정대로 승차하니 모두가 환호성 속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따뜻한 파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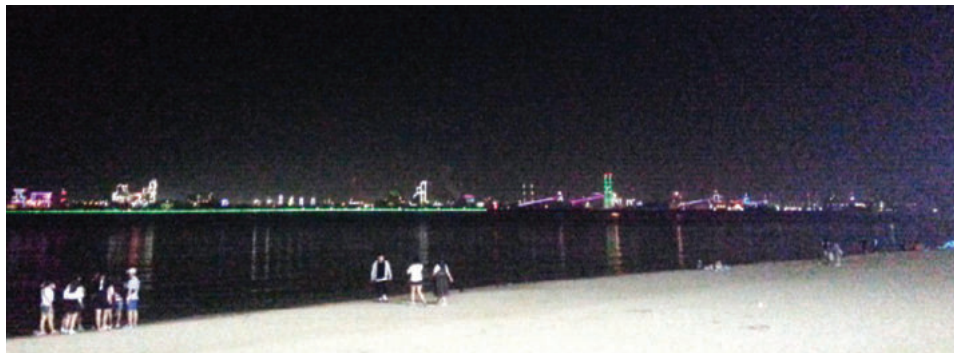
한두 잔 서로 나누는 이슬에 한껏 고조된 기분을 감추질 못하는 우리들을 태운 KTX 산천호는 어느덧 어둑해진 창밖의 멋진 풍경들을 뒤로 밀쳐내고 힘차게 달리고 달려 동대구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51분. 이곳에서는 대구팀 김윤순, 남애숙 친구와 멀리 전주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동운 친구가 승차하여 우리와 합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열차는 바다로 향하는 철로를 30여분 더 내달리더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저녁 9시 26분 우리 일행을 포항역에 내려놓았다.

### 먼 여행지에서의 꿈같은 하룻밤 해후의 자리

다소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모두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룰루랄라..... 휘황찬란한 포항역사를 서둘러 빠져 나오니 역사밖엔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자가운전하여 미리 도착해 있던 강성원 친구와 영일만 싸나이 김성만, 권영철 친구와 사모님이 마중을 나와 우리 모두 반갑게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행은 총 18명 대부분으로 재편 완료!

사실 모두들 일상이 바쁘다 보니 막상 여행가는 날조차도 여유있게 이른 시간 출발을 할 수 없어 결국 늦은 오후에야 출발, 이렇듯 다소 늦은 저녁에 도착하고 보니 별 다른 당일 일정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안고 저녁식사 겸 환영 축하 자리가 예약된 영일





만 동일대 해수욕장 인근 식당으로 포항 친구들이 마련한 차를 타고 바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미 밤이 까맣게 내려앉은 영일만 해변에 위치한 포항의 대표 조개구이집의 여러 가지 조개 모듬구이는 싱싱한 조개맛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원한 바닷바람, 달빛 내리는 백사장, 젊음의 열정이 한껏 펼쳐지고 있는 해변 특유의 풍경과 어울려 환상의 맛과 멋을 선사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좋은 술, 맛난 음식이 가득하고 좋은 친구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우리들의 추억속 애기꽃은 밤 깊어가는 줄 모르고 만발하였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때 그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따뜻한 우정까지도 모두모두 소담히 담아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렇듯 먼 여행지에서의 하룻밤 해후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겐 크나 큰 행운이기도 하였다. 서로의 꾸밈없는 삶과 우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운듯 가슴 먹먹하고, 애틋한듯 안타까우며, 진한듯 애써 담백하게 영일만 해변에서 밤을 꼬박 지새울듯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벌써 자정을 향하고 있는 꽤나 늦은 시간임에도 어제로 사라지는 오늘의 시간이 무척이나 아쉬운 듯 동일대 해수욕장 밤바다 백사장에는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해변가 길거리 뮤지션들의 노래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들 깊어가는 밤을 아쉬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늘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 너무 짧게 느껴진 이날의 시간 속에 지나간 긴 세월 속의 못다한 이야기들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며 첫 날의 흐뭇한 우정 나눔의 자리를 마감하고 이 날의 숙소인 청룡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방을 배정했던 옛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떠올리게 한 숙소에 자정이 다 된 시간어야 도착할 수 있었다. 어느 여행 어느 자리에도 항상 아쉬움은 남는 법, 그런 아쉬

움을 달래려는 듯 몇몇 친구들은 용의주도하게 포장해온 자연산 싱싱회를 안주삼아 한 잔 더 보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동안 시간은 어느새 새벽 3시를 향하고, 이날 하루는 그렇게 마감하게 되었다.

### 해장 오브 초이스, 생물 아귀탕의 위업

요즘의 일기예보는 적중하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다음날 이른 새벽, 예보 대로 다소 흐린 날씨 속 영일만에는 우리들의 추억여행 이튿날의 여명이 밝고 있었다. 그 시각, 이날따라 무척이나 잔잔한 영일만 한켠 포구 끝 방파제에는 한 무리의 부지런한 새벽 낚시꾼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고 있었고, 그리 멀지 않은 바다 건너편에는 동양 최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포항제철이 엄청난 모습으로 웅장한 동력 소리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우렁차게도 조용한 아침 바다 위를 덮치듯 퍼져나오고 있었다.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늦은 취침이었는데도 다들 이른 새벽부터 잠이 깨어 주변 어촌자락 해변을 산책한 부지런한 친구들, 이부자리에서 여전히 뒤척거리는 친구들, 모두들 더운 물 샤워로 정신 차리고, 포항의 성만 친구가 알뜰하게 준비해온 맛난 오색 찰떡과 모닝커피로 간단한 아침 군것질을 마치고 모두들 해장이 필요한 위장상태를 확인하며 아침 9시, 특별히 대절한 럭셔리 대형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현지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맛집으로, 간밤 진하게 영접한 주님으로 시달린 위축된 위장을 해장하는 데는 더할 나위없는 아귀탕 맛집이 바로 우리들의 최우선 목적지였다. 이곳에서 자가운전하여 한걸음에 달려온 온 정명진, 이원영 친구가 반갑게 합류하였다.

양포에 위치한 그 맛집의 생물 아귀탕은 가히 해장 오브 초

이스였고 그저 “대박”, “대박”하는 소리만이 난무할 뿐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었다.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당하게 얼큰 시원한(?) 국물을 들이마시듯 음미하니 여기저기서 “어흐~”, “어흐~” 소리가 연발로 터져 나오면서 쓰린 속이 바로 만사 오케이!!!

이제 속풀이도 완벽하게 했으니 적극적으로 포항주변 지역 답사를 시작할 시간, 우리는 구룡포를 지나는 해파랑길을 달려 그 유명한 상생의 손 조각상이 있는 호미곶으로 향했다. 그곳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포항 호미곶 광장 끝 자락의 해변에는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커다란 시계가 흐린 듯한 날씨 속에서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한 번쯤은 일정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며 호미곶 광장 끝에서 바다로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 끝에서 생명력 넘치는 힘찬 고래가 숨쉬고 있을 푸른 동해바다를 품에 한껏 안아 보았다.

이곳에서 우리의 호프 이종학 친구가 상주에서 달려와 합류함으로써 여행 출발 후 전 인원이 함께 처음으로 단체사진으로 여행의 증거를 남겼다. 사실, 사진 촬영 시마다 포항 권영철 친구의 익살스런 유머가 BGM으로 사진 속으로 들어갔지만 19금 멘트로 판단, 여기 옮기는 건 아무래도 삼가야 할 듯한데, 혹여 많이 궁금하시면 글쓰이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 짧고도 길었던 우리들의 추억여행

좋은 분위기에서는 호미곶의 그 시계처럼 시간이 거꾸로 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어 마냥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할 수밖에... 그렇게 흐르는 시간을 아쉬움 속에 뒤로 하고 우리는 다음 경유지 경주로 향하였다.

포항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감포해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동해의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조성된 문무대왕의 수중왕릉이 1300 여년의 긴 세월을 뛰어 넘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수중왕릉에 좀 더 다가가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 속에 근처 해변에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문무대왕이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세우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신문왕 때 완성했다는 옛 감은사터가 있고, 그 터 금당 앞에는 그 긴 세월 온갖 풍상을

용케도 잘 견뎌낸 3층 석탑, 동탑과 서탑이 마주 보며 그 간의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뚝 서 있었다.

이내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하여 보문단지 호숫가를 한 시간 남짓 자유롭게 산책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수록 더 빨리 느껴지는 게 상식이라 벌써 시간이 흘러 이제 여행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서둘러 포항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조금은 이른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후 6시 50분발 서울행 KTX를 타야하기 때문이었다.

저녁식사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 이름난 또 다른 맛집. 아침부터 다소 빡빡한 일정의 여행코스를 소화하느라 강행군으로 허기진 우리를 맞이한 것은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와 오징어회, 포항의 유명한 물회 등등으로 한 상 가득 채워진 입맛 돋게 하는 음식들이었다.

이번 추억여행을 끝맺음 하는 만찬은 그렇게 준비된 푸짐한 회와 소주 반주로 마무리하고, 포항 친구들이 특별히 준비한 멸치 선물을 받아 안고 우리 모두는 짧고도 긴 추억여행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귀경 KTX에 몸을 실었다.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곳곳이 살아낸 후, 2016년 어느 좋은 봄날 학창시절에 맺은 인연의 끈을 짧지만 긴 1박 2일의 재회로 다시 이어 지는 세월 서로의 꾸밈없는 삶과 우정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 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따스한 감정까지도 소담히 담아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고맙고도 유익한 기회였다.

이번 여행에서 서로 나누고 느낀 모든 것들은 우리들 삶의 진솔한 하나의 궤적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그대로 아로 새겨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억여행기를 마무리 한다.

P/S: 끝으로, 우리 중약 18회 동기회 전광우 회장, 전춘이 총무, 이훈복 총무, 포항의 김성만 친구, 권영철 친구 그리고 영철 친구 사모님께, 그리고 같이 여행한 모든 친구들, 부득이하게 같이 못한 친구들 모두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병태생리학실

# 36年 傳統과 동문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오다





**병태생리학교실**은 1980년 창설된 이래 36년의 전통과 함께 동문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재학 중 병태생리학실에서 활동하던 동문들의 모임인 “병리동문회”를 주축으로 하여, 대학원 출신 동문들의 모임인 “병리원우회”와 그 중 박사들의 모임인 “병리박사회”가 있다.

특히 졸업한 동문들이 소중한 뜻을 십시일반 모아 매학기마다 병태생리학교실 소속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병태생리학교실 동문 장학회”가 2013년에 창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활발히 장학금 기금과 회원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병태생리학교실은 실험반 중 재학생들이 실험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실험반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졸업생들 또한 약국과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공직약사, 국내외 대학교수, 정치계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유종운(29회)**  
현 병리동문회 회장  
종로세명약국 대표



**유정수(28회)**  
현 병리원우회 회장  
한국TEI 대표



**송호선(51회)**  
현 병리동문 장학회 회장  
특허청

**1980년** 당시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을 담당하던 김창종 교수님(11회)께서 조교수로 취임하면서 공식적으로 “병태생리학교실”이 창설되었으며, 뒤이어 1988년에 병태생리학 전공 대학원 석사학위생들을 주축으로 한 병리원우회가 정진모 동문(14회)을 초대회장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곧바로 1991년에 병태생리학실 졸업생들의 모임인 병리동문회가 김수종 동문(23회)을 초대회장으로 하여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병태생리학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병태생리학 전공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진모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한 병리박사회가 1995년에 창설되었다.

특히나 2013년에는 병리동문회 중 따로 병태생리학 동문

장학회를 구성해 송호선 동문(51회) 초대회장을 필두로 후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뜻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매 학기마다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약대 동문회를 통해 병태생리학교실 소속 재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7월에는 장학회 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1997년**에는 심상수 교수님(26회)께서 부임하시어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 실습을 담당하시게 되고, 2010년 9월 김창종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기 전까지 두 분 교수님께서 병태생리학교실의 지도교수로서 동문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많은 석·박사 졸업생들을 배출하셨다.

이후 2015년 병태생리학 담당 이지윤 교수님(46회)이 새로 부임하면서 심상수 교수님과 함께 병태생태학교실 지도교



2015년 스승의날



2016년 병태생리학교실 입반면담회



2016년 장학금수여식



2016년 신입생환영회



2016년 졸업생환송회



2015년 약대동문화 체육대회



2015년 겨울방학 실험



2016년7월 경북여자고등학교 학생멘토링

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현재 심상수 교수님(생리기능 및 세포신호전달 연구실)은 동물실험을 통한 생리활성 기능 규명 및 세포내 신호 전달과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며, 이지윤 교수님(병태생리학 연구실)은 염증 및 알러지성 질환에 관한 병리기전 연구를 수행하고계신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병태생리학교실은 지도교수와의 진솔한 대화를 이끄는 신년하례식,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졸업생환송회, 병리반교실에 새로 가입한 재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신입생환영회, 실험반원들 간의 우정이 쌓이는 봄·가을 MT,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마음이 되는 병리동문회 체육대회 및

진로 고민이 많은 후배들을 위한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선배들의 도움과 조언이 이루어지는 진로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방학과 칼바람의 겨울방학에는 학부생들이 주최가 된 방학여행뿐만 아니라 병태생리학 지식을 풍족하게 해 줄 재학생 방학실험 등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기들 간의 우정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사랑 및 병태생리학교실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키우며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현재 졸업생과 재학생들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



For  
a Better and  
Longer Life

## 재생의학을 실현하는 *total healthcare company*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재생의학 바이오전문제약회사로서, 자가재생 촉진제인 PDRN® 및 PN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재생 제품으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인 재생의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3년 12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개발, 인·허가 등록 컨설팅서비스 회사로 창업하였고, 약 700여개의 우수 해외 의약 소재 및 제품을 선별하여 국내 판권을 획득하고 수입·유통하는 수입의약품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수입 및 유통 의약품 사업에 그치지 않고 수입 의약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강릉 KIST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PDRN 및 PN을 국산연어에서 추출하는 DNA 최적화 기술(DNA fragment optimizing technology; DOT)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 연어 DNA를 이용한 PDRN 및 PN 제조 기술이며, 이후 이탈리아 Mastelli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판권을 소유하여 PDRN 산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2013년 강릉 과학단지 내 원료 및 완제 GMP인증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PDRN 및 PN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전공정 국산화에 성공하여, 개발부터, 유통, 제조까지 수행 가능한 종합 바이오 제약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재생의학 의약품인 리쥬비넥스주, 리안점안액과 피부재생 효능을 가진 의료기기인 리쥬란, 기타헬스케어



정 상 수(24회)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표이사





파마리서치연구소



파마리서치강릉공장

제품을 국내 상용화함으로써 재생의학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기술 활용 및 제품 개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년동안 연평균 46%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17년 골관절염 치료제를 포함한 추가 제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여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재생의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2014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 기술 제휴,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미용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작년에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제조업 진출 3년만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 당사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유기농화장품 회사인 DrJSkinclinic사를 인수하여 북미 화장품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화장품사업을 시작으로 PDRN/PN을 이용한 재생 제품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해외의 우수 기술을 확보하고자 스웨덴 바이오벤처 Lipopeptide사와 기능성 펩타이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제품에 대한 아시아 판권 및 글로벌 독점 생산권을 소유하여 2016년 신축 예정인 제 2공장을 통해 제조업을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For A Better and Longer Life'의 기업 모토에 따라 재생의학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 개선과 생명연장에 기여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는 total healthcare company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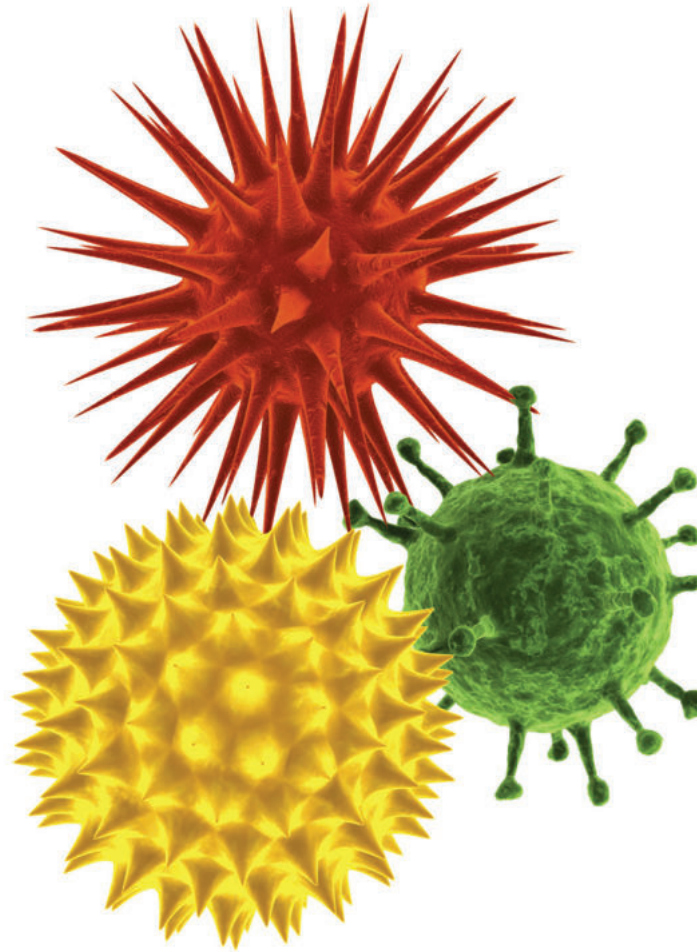


숙주세포 침투가 나의 운명

# 바이러스

*virus*

편집위원회



## 독(毒)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바이러스

라틴어로 '독(毒)'이라는 의미를 지닌 '비루스(virus)'에서 유래된 바이러스는 일반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매우 크기가 작은 원시적인 생명체로, 살아있는 생물의 몸속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이다.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평균 10~1000nm 정도로 세균(bacteria)보다도 작아 세균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성 병원체'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바이러스는 핵이나 세포막 등의 세포기관도 없고, 독립적 효소가 없어 독립적 물질대사가 불가능하며, 생물체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무생물적 특성)하는 한편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한 물질대사가 가능하고, 증식이나 유전 등의 생명현상을 나타내며, 자기복제가 가능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등의 특성(생물적 특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비세포성 생명체'로 지칭되기도 한다. 유전물질인 RNA 혹은 DNA와 그 유전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안에 침투시킨 뒤 침투당한 세포의 소기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바이러스들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숙주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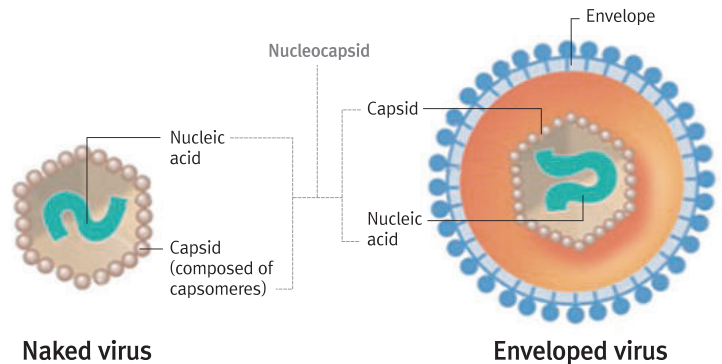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균과 비교하면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세균(박테리아)	바이러스	비교포인트
크기	1000nm (광학현미경으로 가능)	20~400nm (전자현미경 필요)	세균이 박테리아보다 보통 10~100배 정도 크다
형태	유기생물 단세포	유기생물이 아닌 원시구조체 세포 아님(RNA/DNA를 포함한 단백질)	바이러스의 경우 학자에 따라 유기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생존 방식	단독생존가능	다른 세포속에 침투하여 생존 따라서 동식물 숙주가 필요	
번식 (증식)	세포분열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내 리보솜과 단백질을 이용(파괴)해 유전정보(DNA/RNA)복제	바이러스는 새로운 세포로 계속 침투/복제를 반복. 이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고 변종도 발생
인간 관계	유익균(유산균류 등)도 있음 상처, 구강 등으로 침입	모든 바이러스는 해로움 (숙주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	
관련 질병	식중독, 세균성폐렴, 피부병, 결핵, 콜레라, 파상풍	감기, 독감, 홍역, 수두, 천연두, ADIS, 소아마비	
치료 및 예방	항생제치료	백신으로 일부 예방 항바이러스제	청결과 운동 등으로 면역력 강화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성

### 구조 - 단백질 주머니 속에 든 유전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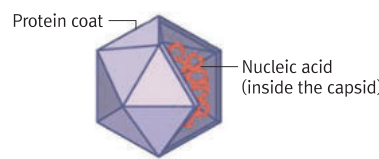
바이러스는 RNA나 DNA 같은 유전물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피막(capsid)으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단백질 피막은 구슬 모양의 단백질(capsomere)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바이러스는 단백질 피막 이외에 숙주세포의 세포막에서 유래된 지질로 이루어진 막(envelope)을 가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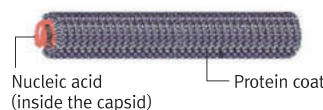
Naked virus

Enveloped 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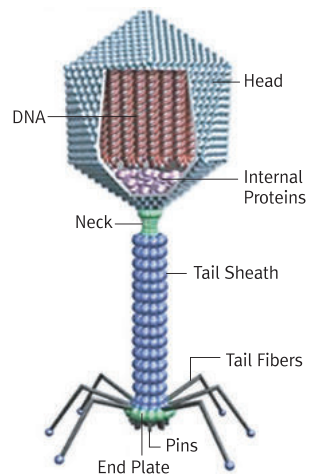
- **중심부(core)** : 유전자 집합체인 게놈(genome)을 운반하는 유전물질인 핵산(RNA 혹은 DNA)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단백질 피막(capsid)** : 핵산을 보호하는 구조로 바이러스 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이러스의 형태를 결정한다.
- **외피(envelope)** : 지질이중층으로 된 막으로, 모든 바이러스가 외피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돌기(spike)가 있는 경우도 있다.



등축형



나선형



복합형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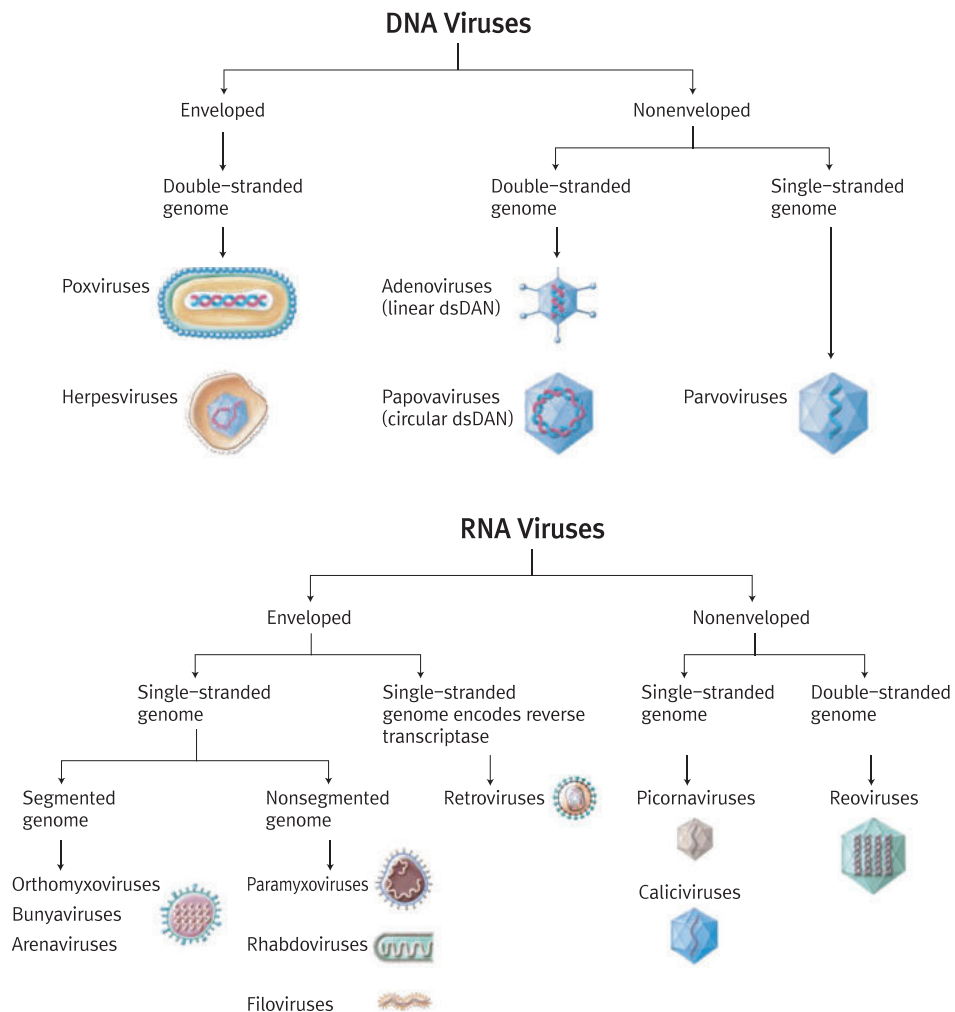
**분류-성질이 좀 더 고약한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식물성, 동물성 및 세균성 바이러스로 나누기도 하지만, 생명체 증식의 근원이 핵산에 있으므로 핵산의 종류에 따라 RNA 혹은 DNA 바이러스로 분류한다.

좀 더 세분하면 형태에 따라(등척형, 나선형, 복합형), 외피 유무에 따라(외피 있음 혹은 외피 없음), 핵산의 형태에 따라(단일 나선 vs. 이중 나선, 직선형 vs. 환상형 등) 나누기도 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DNA 바이러스에 비해 RNA 바이러스는 대개 불안정하며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주의 종류에 따른 분류</li> <li>- 동물성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li> <li>- 식물성 바이러스 :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li> <li>- 세균성 바이러스 : 박테리오파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li> <li>- RNA 바이러스 : coronavirus, picornavirus, retrovirus, paramyxovirus, rhabdovirus, arenavirus, astrovirus</li> <li>- DNA 바이러스 : adenovirus, herpesvirus, poxvirus, parvovirus, papovavirus</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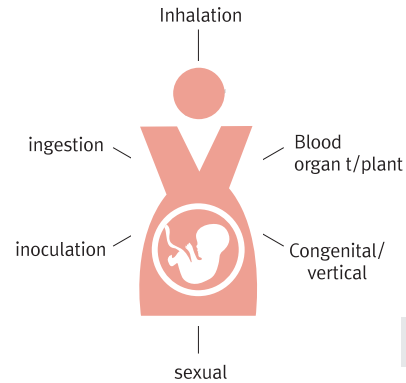


바이러스의 분류

참고로 바이러스의 명칭은 대개 그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병의 이름을 따거나(소아마비를 뜻하는 polio에서 유래된 poliovirus), 감염시키는 대상(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 발견된 지역(아프리카 에볼라 지역에서 발견된 Ebola virus) 혹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단핵증에서 확인된 Epstein-Barr virus)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 전파경로-침투 못할 경로는 없음

다른 많은 감염증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기 쉬운 개인들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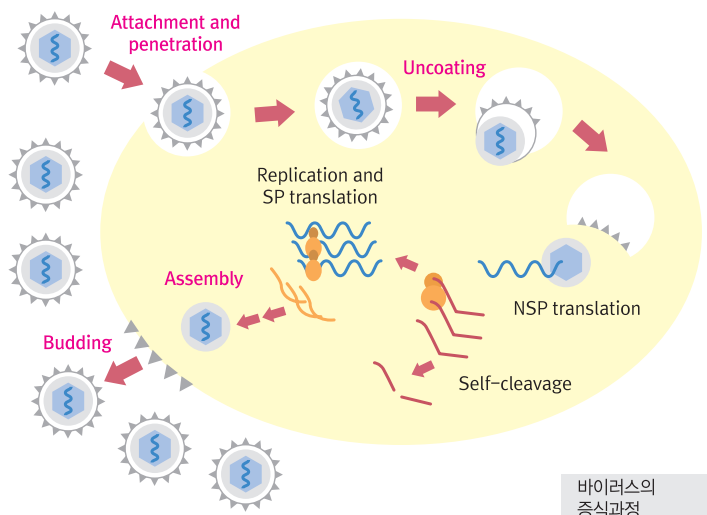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 **호흡기 (adeno-, rhino-, corona-, influenza-, orthomyxo-)**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도중 비말 형태로 전파된다. 밀접한 접촉시 전파력이 최고로 높다.
- **소화기(entero-, polio-, reo-, rota-)** : 다수의 바이러스가 위장관에서 고농도로 증식된 후 분변을 통해서 배출된다.
- **비뇨생식기(HIV, herpes simplex, human papilloma-)** :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다.
- **혈액(hepatitis-, HIV)** : 오염된 혈액 제제 혹은 약물 오남용시 주사바늘 공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 **동물/곤충 매개(rabies-, arbo-, dengue-)** : 동물의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통상 다른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는다.
- **수직감염(rubella-, cytomegalo-)** : 일부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임신 도중 바이러스 감염증은 태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 바이러스 증식과정-복제하는데 선수

- **부착(attachment)** : 숙주세포와 바이러스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숙주세포 표면의 특수한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부착된다.
- **관통(penetration)** : 식작용을 통하거나 아니면 유전물질(DNA 혹은 RNA)이 세포 내로 주입된다.
- **해체(uncoating)** : 숙주 내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외각 단백을 벗어버리고 숙주세포의 세포질내 또는 핵내로 들어간다.



바이러스의 증식과정

· 복제 및 조립(replication & assembly) : 주입된 유전물질이 숙주세포의 효소를 동원시켜 핵산을 복제하고, 캡시드를 합성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된다.

· 방출(release) :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되면 바이러스 효소에 의해 숙주세포로부터 방출된다.

감염증 유발 기전-죽이거나 살리거나

· 세포 사멸(killing cells)

- poliovirus : 신경세포에서 증식하여 척주 전각세포를 파괴하면 사지마비를 유발하고, 뇌간의 신경세포를 침해하면 호흡마비를 유발한다.
- 호흡기 바이러스 : 호흡기 상피세포를 파괴한다.

· 면역반응 유도(inducing immunopathology)

- hepatitis B virus : 간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조직손상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숙주의 면역반응에 기인한다.

· 세포 변형(transforming cell) :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증식을 유발하거나 세포사멸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발현시켜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 human papillomavirus : 자궁경부암
- hepatitis B : 간암
- Epstein Barr virus (EBV) : 단핵구증
- human T-cell leukemia virus : 백혈병

대표적인 바이러스 감염증-천연두에서 메르스까지

천연두(smallpox)는 3,500만년 전 인류역사에 첫 기록을 남긴 바이러스로, 기원전 430년 아테네를 휩쓸어 군대의 4분의 1과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다. 1700년대 농가에서 소젖을 짜는 여성은 절대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 영국 의사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처음 개발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두의 학명인 'Variolae vaccinae'에서 백신 접종(vaccination)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1918년 독감(일명 스페인 독감, H1N1)은 1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도 1957년에 100여만 명이 사망한 아시아 독감, 1968년에 70여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의 범유행(pandemic)은 계속되었다.

HIV는 1980년대 이후 6천만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절반을 사망케 했으며, 중국과 홍콩에서 창궐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에볼라는 감염된 사람의 눈, 코, 입 등 전신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게 만드는 끈적한 바이러스지만 치사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사람 사이의 감염이 잘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쳤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바이러스 전염병도 계속 출현하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과 그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홍역(measles; rubeola) : rubeola virus  
 · 풍진(German measles; rubella) : rubella virus

· 수두(chickenpox; varicella) : herpes varicella virus  
 · 이하선염/볼거리(mumps) : mumps virus

- 단순포진(herpes simplex) : HSV-1(herpes simplex virus Type 1)
- 대상포진(shingles) : herpes zoster virus
- 사마귀(warts) : human papillomavirus
- 에볼라(Ebola; Ebola fever) : Ebola virus
- 간염(hepatitis) : hepatitis virus Type A, B, C, D, E
- 소아마비/회백수염(polio) : poliovirus
- 단핵증(mononucleosis) : Epstein-Barr virus
- 감기(common cold) : rhinovirus, adenovirus, coronavirus, human metapneumovirus, parainfluenza virus,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 인플루엔자(influenza) : influenza virus Type A, B & C
- 폐렴(pneumonia) : influenza virus Type A & B, parainfluenza virus, RSV, Epstein-Barr virus, adenovirus, herpes varicella virus, rubeola virus, rubella virus, coronavirus(SARS, MERS)
- 위장염(gastroenteritis) : adenovirus, rotavirus, norovirus, astrovirus, coronavirus
- 췌장염(pancreatitis) : coxsackie B virus
- 척수염(myelitis) : poliovirus, HTLV-1(Human T-lymphotrophic virus-1)

- 후두염(pharyngitis) : adenovirus, Epstein-Barr virus, cytomegalovirus, HSV-1
- 치은구내염(gingivostomatitis) : HSV-1
- 유행성 각결막염(epidemic keratoconjunctivitis) : adenovirus, HSV-1
- 뇌염(encephalitis)/수막염(meningitis) : JC virus, measles virus, LCM virus, arbovirus, rabies virus, poliovirus, HIV, mumps virus, coxsackie B virus, HSV-2, enterovirus, cytomegalovirus
- 광견병(rabies) : rabies virus
- 천연두(smallpox) : poxvirus
- 심혈관감염증(cardiovascular infections; 심막염, 심근염) : coxsackie B virus, adenovirus, rubella virus, HSV, varicella-zoster virus, Epstein-Barr virus, human parvovirus 19
- 피부감염증(skin infections) : varicella-zoster virus, human herpes virus 6, human papillomavirus, smallpox virus, rubella virus, measles virus, human parvovirus 19, coxsackie A virus
- 성인성 질환(STD) : HSV-1 & 2, human papillomavirus, HIV, hepatitis B virus
- 암(cancer) : human papillomavirus,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 C virus, HIV, human herpes virus 8, HTLV-1, Merkel cell polyomavirus

### 치료-선택성 높은 약물을 찾아서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성상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우며, 특히 숙주와 바이러스의 유사성 때문에 정상 세포가 아니라 감염된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바이러스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숙주에는 해가 없고 바이러스 증식만 억제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바이러스는 몇몇 특이적 증식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숙주와 바이러스에 선별적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숙주세포에 독성이 적은 소위 선택성이 높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 유입 억제제(entry inhibitor)

: 숙주세포의 세포막과 바이러스 외피의 융합을 매개하는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로의 유입을 막거나(enfuvirtide), 숙주세포의 CCR-5 수용체를 차단하여 바이러스의 세포내 유입을 막아준다(maraviroc)

#### HIV 치료

- enfuvirtide(Fuzeon®; 로슈)
- maraviroc(Selzentry®; 화이자)

· 해체 억제제(uncoating inhibitor)

: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숙주세포 내로 들어간 후 핵산으로부터 단백질 피막이 분리(uncoating)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 준다

influenza A 치료

- rimantidine(Flumadine<sup>®</sup>; 맥네일)
- amantadine(Symmetrel<sup>®</sup>; 엔도)

· RNA 합성 억제제(RNA synthesis inhibitor)

: RNA polymerase를 억제한다

hepatitis 치료

- interferon(Pegasys<sup>®</sup>; 로슈)
- ribavirin(Rebetol<sup>®</sup>; 머크)

· 유전자 증식 억제제

- DNA polymerase 억제제 : 뉴클레오티드 결합부위에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polymerase를 억제한다

herpes 치료

- acyclovir(Zovirax<sup>®</sup>; GSK)
- famciclovir(Famvir<sup>®</sup>; 노바티스)

- reverse transcriptase 억제제 : 뉴클레오티드 결합부위에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를 억제한다

HIV 치료

- zidovudine(Retorvir<sup>®</sup>; GSK)

· 바이러스 조합 억제제(protease inhibitor)

: 바이러스 입자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인 protease를 억제한다

HIV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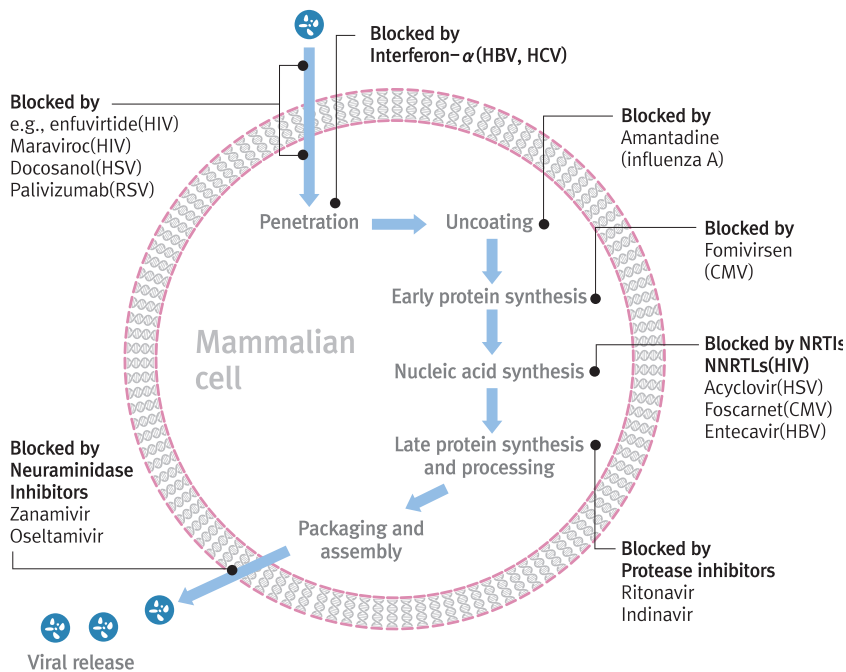
- indinavir(Crixivan<sup>®</sup>; 머크)
- ritonavir(Norvir<sup>®</sup>; 애브비)

· 바이러스 방출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

: 감염된 숙주세포로부터 감염성 바이러스 입자의 유리에 필요한 효소인 neuraminidase를 억제한다

influenza A & B 치료

- zanamivir(Relenza<sup>®</sup>; GSK)
- oseltamivir(Tamiflu<sup>®</sup>; 로슈)



항바이러스제의 작용점



약값  
 The price of medicine  
 근종비용 1.8%. 카산투론 2%.  
 인건비 2.1%. 병인에 0.4%.  
 복제비용 일반경비 2.5%.  
 근종비용만 8.8%.



# 酒神 바커스의 독백

불경기의 늑.  
 팔수룩 손해... 어찌... 하라고...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100주년 기념관 동판제작 기부명단



김현태	20회	1,000,000	곽나운	27회	1,000,000
유정사	10회	1,000,000	김정호	27회	1,000,000
박호일	10회	1,000,000	이해룡	28회	1,000,000
이관하	12회	1,000,000	이혁빈	28회	1,000,000
윤대봉	14회	1,000,000	양덕숙	28회	1,000,000
조찬취	15회	1,000,000	구영삼	28회	3,000,000
허사길	16회	1,000,000	조한군	28회	1,000,000
장재인	17회	1,000,000	김유곤	28회	1,000,000
남상구	19회	1,000,000	손병로	29회	1,000,000
정찬현	20회	1,000,000	한일권	34회	1,000,000
이상일	20회	3,000,000	홍흥만	1회동기회	1,000,000
이극선	20회	1,000,000	유영한	26회동기회	1,000,000
김수배	21회	1,000,000	이해룡	28회동기회	1,000,000
박전희	21회	1,000,000	이훈복	동작구동문회	1,000,000
최광훈	22회	1,000,000	김유곤	부천시동문회	1,000,000
이광섭	24회	1,000,000	<b>현재 합계</b>		<b>35,000,000</b>

### 김순호 동문 장학기금 기부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에 김순호(11회) 동문의 장학기금 일천만원 기부식이 있었다.

김순호 동문은 1973년 미국약사면허 취득 후 Mercy Catholic Medical Center 근무, 필라델피아 Eri 약국 개업 30년,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 제46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안내

#### 골프대회

- 일시 : 9월 27일(화) 첫 Tee Time 오전 6시 56분 (7분간격)
- 장소 : 88CC ☎ 031-287-8812  
- 그린피, 카트비 220,000(캐디피별도)

#### 체육대회

- 일시 : 10월 16일(셋째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
- 종목 : 대항전-족구, 바둑, 제기차기, 윷놀이, 미니골프, 생맥주(3000CC) 빨리먹기 등  
청백전-단체줄다리기, 계주

※ 자세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동문회 사무실(02-565-1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6-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약품분석화학	조현덕
2	본동문회	2,000,000	약제학	김형민
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구형모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솔이
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혜진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류다연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서동영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서유미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오지선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오지수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영담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동균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홍록기
14	본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의진
15	본동문회	500,000	제약학	홍영기
16	본동문회(김명섭)	2,000,000	제약학	홍효빈
17	본동문회(손동헌)	2,000,000	제약학	전소영
18	본동문회(남상구)	2,000,000	제약학	김용민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9	본동문회(남상구)	1,500,000	제약학	남기현
20	본동문회(남상구)	1,500,000	제약학	송현주
21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예슬
22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	송시현
23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24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인정렬
25	안양동문회	1,000,000	약학	김수빈
26	천안동문회	1,000,000	약학	박태광
27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배현호
28	26회동기회	2,000,000	제약학	이민아
29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	이윤영
30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제혁
3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혜원
32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원웅록
33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채인혜
34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최종환
35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김희정
<b>합 계</b>		<b>41,000,000</b>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108년 만의 폭염!  
동문여러분 진심으로 건강한 하루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동문회보 배송될 즈음 시원한 바람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년이  
성큼 다가오겠죠?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세상에 체온보다 높이 올라가는 온도를 이 땅에서 상시로 목도하는 날이  
우리 당대에 도래하다니!  
언제부터인가 ‘고마운’ 태풍을 기다린다고도 하고,  
전시 비축물자 정도로 알았던 에어컨을 밤새 켜놓기도 한다고 하고,  
났다 하면 초대형 산불에 왔다 하면 미증유의 홍수라니  
도대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까마득하다.  
솔로몬 왕이시여, 우매한 중생들에게 부디 위로의 한 말씀 전해 주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해룡**(28회)  
편집위원

낡은 약대 건물(파이퍼홀) 해체하고  
첨단시설 완비된 새건물(약학관) 신축한다더니  
해체한다던 건물은 고쳐서 멀쩡하니 딱 용도로 쓰고 있건만  
새건물에는 문패도 달아주지 않는다네.  
정량적인 분석(모금액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성적인 분석(역사성, 상징성, 정체성) 역시 무시해서는 안되는게  
고금의 진리일터!



# 중앙대 동문 약사 및 가족을 위한 일요일 건강검진 안내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 고생하신 동문 약사님들과 가족들 대상으로 일요일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동문 약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전문화된 의료진의 특화된 검진시스템으로 차별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 자** 2016년 총 2회(7/31, 10/30)  
**대 상 자** 동문 약사님 및 가족  
**항 목** 기본검진+추가 검사 항목 30% 할인(단, 수면·대장내시경 할인 제외)  
**추가 공제 할인** 2015년도 공단검진 대상자 3~10만원 공제 가능  
 (ex. 40세 이상 여성 - 10만원 추가 할인 공제)  
**예약 및 문의** 전화 02-6299-3302~7  
 홈페이지 <http://ch.cauhs.or.kr> 이메일 [hcc2775@hanmail.net](mailto:hcc2775@hanmail.net)

## 검진프로그램 항목 및 수가

### ● 종합검진 (30% 할인 적용)

| 프로그램 | 정상가    | 할인가     | 검사 항목   |                                                                                                                                                                                                                                               |
|------|--------|---------|---------|-----------------------------------------------------------------------------------------------------------------------------------------------------------------------------------------------------------------------------------------------|
| 남자   | 50세 미만 | 550,000 | 385,000 | 신체계측, 체성분, 폐기능, 안안/안저, 청력<br>소화기계 - 위내시경, 상복부초음파, A·B·C형 간염<br>호흡기계 - 흉부 X선(전면, 측면), 폐기능<br>순환기계 - 심전도<br>내분비계 - 고지혈증, 갑상선 호르몬<br>중앙 표지자 - 위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
|      | 50세 이상 | 670,000 | 469,000 | 기본 검진 + 저선량 흉부 CT 또는 심장 초음파 (선택 1)                                                                                                                                                                                                            |
| 여자   | 50세 미만 | 590,000 | 413,000 | <기혼><br>신체계측, 체성분, 폐기능, 안안/안저, 청력<br>소화기계 - 위내시경, 상복부초음파, A·B·C형 간염<br>호흡기계 - 흉부 X선(전면, 측면), 폐기능<br>순환기계 - 심전도<br>내분비계 - 고지혈증, 갑상선 호르몬<br>중앙 표지자 - 위암, 간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br>여성 검사 - 유방촬영, 액상PAP, 여성호르몬<br><미혼><br>기본검진 중 여성 검사 삭제, 갑상선 초음파 추가 |
|      | 50세 이상 | 690,000 | 483,000 | 기본 검진 + 골밀도 + 질식 초음파                                                                                                                                                                                                                          |

### ● 선택검사 항목 (30% 할인 적용) - 대장내시경, 수면내시경은 제외

| 검사명            | 정상가       | 할인가     | 검사명           | 정상가     | 할인가     |
|----------------|-----------|---------|---------------|---------|---------|
| PET-CT         | 1,100,000 | 770,000 | 알레르기 정밀       | 180,000 | 126,000 |
| 뇌 MRI & MRA    | 900,000   | 630,000 | 경동맥 초음파       | 190,000 | 133,000 |
| 뇌 MRI          | 500,000   | 350,000 | 유방 초음파        | 170,000 | 119,000 |
| 해마 MRI         | 500,000   | 350,000 | 갑상선 초음파       | 150,000 | 105,000 |
| 뇌 MRA          | 400,000   | 280,000 | 질식 초음파        | 90,000  | 63,000  |
| 뇌혈관 CT         | 300,000   | 210,000 | 전립선 초음파       | 160,000 | 112,000 |
| 뇌 CT           | 160,000   | 112,000 | 심장 초음파        | 200,000 | 140,000 |
| 심장 관상동맥 CT     | 350,000   | 245,000 | 인유두종 바이러스     | 100,000 | 70,000  |
| 수면내시경(대장 또는 위) | 80,000    | 80,000  | 수면내시경(대장+위동세) | 100,000 | 100,000 |
| 저선량 흉부 CT      | 160,000   | 112,000 | 대장내시경         | 170,000 | 170,000 |
| 복부 & 골반 CT     | 300,000   | 210,000 | 골밀도 검사        | 70,000  | 49,000  |

예약문의  
**02-6299-3304~9**

# 전립선비대증(BPH) 치료에

원~투~ 펀치...



원투스테리드 캡슐

프로스테리드 정

후리패스 캡슐

탐소신 서방정

뉴씨그라 정



**Global R&D Leader**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Collaboration Research & Development  
**Hanmi Open Innovation**

<http://oi.hanmipharm.com>

 **Hanmi Pharm. Co., Ltd.**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http://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